고은 불교대하소설

91

삼계화택

"저기가 고통의 나날인데 여기라고 등져 남남일 수 있겠느냐"

인답 대해는 두 아이와 그들의 통나무 뗏목까지 끌고 섬에 올라왔다. 우선 대해는 그들이 환자인지 아닌지를 알아 보았다.

그가 바다 위의 잠상(蠶箱) 노릇을 할 때 청나라 연안에서 구조한 한 사람이 그곳 서주와 청주 일대를 휩쓴 괴질의 환자여서 배 안의 잠상 하나가 전염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아보는데는 버릇이 들었던 것인가.

눈꺼풀을 까서 눈동자나 환자위를 살핀다던가 입안을 들여다 본다던가, 그런 뒤 다른 것도 이것저것 까다롭게 알아 보았다.

"여칠 더 두고 보아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별 탈이 난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대해가 말하였다.

"세상이 어찌 굴러가고 있는지…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난리를 일으키거나 초적(草賊)이 되고… 그런가 하면 역병이 돌아 뭇 목숨들이 픽픽 쓰러지는 판이라… 어디 역병만인가. 그 사흘나흘 맹물만 마시는 굶주림은 또 어떤가… 세상을 괴로운 바다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은 오늘에 이르러… 너무 옳은 말이어서 도리어 헛소리인 것 같으니…."

인답은 별로 입에 담지 않던 한숨까지 내며 이런 말을 저혼자 하고 있었다.

우녀와 소석도 막 물에서 올라 온 아이들에게 마실 물부터 준 뒤 우선 아무런 것이나 젖은 것을 몇개 갈아입힐 옷가지를 갖다 놓았다.

대해가 아이들에게 물을 아주 조금씩 천천히 마시도록 했다.

"벌컥벌컥 들이키면 못쓴다… 물 한 모금도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한다. 물도 밥이다."

얼마 뒤에 소석이 환죽을 쑤어 왔다.

"식혀서 먹어야 한다."

"……."

"사람이란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굶주린 몸으로도 짐승처럼 마구 먹을 것에 덤벼들어서는 안된다. 부모가 보인 다음에 먹어야 한다…."

"부모가 다 세상 떠났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의 이름이 이우식이고 다른 아이는 신만우였다.

신만우도 "저도요" 라고 말하였다.

다시 대해가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은 아이들을 꾸짖었다.

"부모가 안계시면 부처님이 보이도록 해야한다."

그러자 우녀가 나타나 "잔소리들이 많네… 그냥 먹게 내버려 두어요" 라고 두 어른들을 탓하였다.

"어서 먹어라… 이제 먹을만 하겠다" 라고 우녀가 따뜻하게 아이들을 달랬다.

이렇게 해서 무욕도에는 여섯사람의 식구로 늘어난 것이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식이와 만우는 제 몸을 단단히 해내기 시작하였다. 그 애들에 대한 일은 우녀가 맡았다. 오전에는 지난번 모진 바람에 날아간 뭇채를 고친 뒤 그곳의 방에서 공부를 시켰다.

공부라고 해야 인답이 글을 가르쳤다. 글 따위를 벗어나는 선(禪)의 사람들이 글을 가르친다는 것은 일단 야릇한 일이다. 하지만 선이 이 세상의 말과 글을 다 죽인다는 뜻이 아니다. 그런 것에 갇히는 바를 벗어남은 부정하는 일 자체가 이미 거기에 갇히는 바가 되지 않을 수 없음을 드러낸다.

인답은 원효의 글을 한 자 한 자 가르친 다음 그 글의 뜻을 새겨주는 것이었다.

> 뭇 중생이 화택문(火宅門)을 떠도는 것은
> 한량없는 이 세상에 탐욕을 버리지 못한 탓이라
> (衆生衆生 縱過火宅門 於無量世 貪慾不捨)

"이 화택이란 불타고 있는 집이겠지? 만약 그 불타는 집에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빨리 그 아이들을 밖으로 끌어내야 하겠지? 그런데 그런 불이 바로 나느냐 하면 우리 중생들이 너도 나도 탐욕에 빠져 있어서 거기서 나는 탐욕의 불이기도 하지. 그러므로 불타고 있는 집은 이 세상이기도 하거니와 우리들의 마음 속이기도 하겠지."

"스님!"

우식이가 고개를 갸웃둥거리다가 말하였다.

"그동안 저희들이 살았던 세상도 불타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일으켜서 불이 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겠지… 세상에는 탐욕 속에 푹 빠져서 헤어날 줄 모르는 중생들이 일으킨 불도 있고 아직 탐욕을 모르나 장차 그 탐욕에 빠질 수 있는 중생들이 있는 법이니라."

이런 말에 우식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것은 일단 자신도 지금 세상이 당하고 있는 여러 고통과 불타는 집으로 그려지는 일들을 무턱대고 인과(因果)로 말해버리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굶주리거나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지난 날의 악업 때문에 받는 과보라고만 말해버린다면 도대체 자비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 자비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이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하겠는가.

인답은 그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얼마쯤의 회의도 있게 되었다. 아니, 심지어는 그가 이 섬의 도량을 열어서 진리에의 정진을 하고 있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의미의 상실도 있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이 두 아이가 나타난 것이야말로 그에게는 그가 해엄쳐나가는 물 위에서 엄청난 파도더미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삼계(三界)가 편안하지 못한 것이 마치 불타고 있는 집과 같다(三界無安 猶如火宅)' 라고 말한 방편설화 자체가 지금 조선 반도 전역을 휩쓸고 있는 '불타는 집' 에 대한 어떤 회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인답은 그런 생각을 마당의 중방아리를 노리고 나타난 살쾡이를 쫓아내는 것처럼 쫓아 버렸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원효가 삭발한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지은 것에 틀림없는 '마음 일으켜 수행하는 글(發心修行章)' 에 대한 새삼스러운 기쁨을 누렸다.

> 산 메아리와 바위굴로 염불하는 법당 삼고
> 슬피우는 새소리로 즐거운 벗 짝을 한다

> 이런 귀절에 이르러 그에게는 이 무욕도량이 새삼 높은 은혜로 이루어진 도량임을 깨달았다.

> 예배드리는 언 무릎에 불 생각을 말 일이요
> 굶주린 창자 끊어져도 먹는 생각 잊을지어다

> 어리석은 사람들의 수행하는 꼴을 보면
> 모래를 쪄 밥을 짓듯 힘만 들고 어렵구나

"그러다가 오늘이 이미 저녁이라 내일 아침 곧 온다네(今日夕矣 朝而到焉)라고 얼러서 다 된 수레로는 가지 못하고 늙은 몸으로는 닦을 수 없다(破車不行 老人不修)고 경고하다가 급하다 급하다(蒐速急乎 蒐速急乎)" 라고 외칠 때는 그의 간담이 서늘할 지경이었다.

그가 두 아이를 가르치는 일이 도리어 이제까지의 그 자신을 깨치는 일이 될 줄이야.

그러고 본즉 원효의 글을 이루고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글자가 아니라 무서운 호령이고 질타였던 것이다.

이토록 스승의 마음이 그 자신의 가책과 참회로 가득해짐에 따라 생기는 새로운 진실이야말로 두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곧바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인답은 우식이와 만우를 사랑하게 되었고 두 아이들도 스승 인답을 한없이 받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우녀가 그런 상태의 인답에게 슬쩍 질투했다.

"인답화상께 아들이 둘이나 생겼습니다."

인답이 머쓱하게 웃었다.

"내가 아비요 내가 어미인 셈이요."

"이제 화상께서는 나를 영영 내버린 셈이요?"

이런 팔딱한 농담 속에는 인답과 우녀 두 사람만이 공부하던 호젓한 행복을 그리워하는 어떤 심정도 엿보이고 있었다.

"내버리다니… 아무리 여기서 내버려보아야 저 파도들로 돌아올 따름인 것을."

"누가 고려의 가난뱅이 시인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랄까보아."

"나에게서 임춘선생은 이미 떠났오.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오?"

> "굶거나 병들어
>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 과보라고만 말한다면
> 도대체 자비는 무엇일까"

"이제야 출가사문(出家沙門) 이시구려."

"오늘도 하늘이 흐리고 하늘 아래 한 보살이 밝지 않도다."

우녀가 정색하였다. 이제까지의 수작을 바꾼 것이다.

"아이들은 쓸만합니까?"

"내가 옹기라면 그 녀석들은 도기(陶器)에다 상감(象嵌)을 넣을만 하다오."

"그렇다면 이 섬구석에서 금까마귀가 날라가겠네."

그녀는 모처럼 아이들의 공부 실참에 왔다가 갔다.

"자… 올라가 보자… 저 꼭대기에" 라고 인답이 두 아이들을 데리고 일어났다.

아침내내 공부랍시고 방안에만 있다가 나오게 되니 아이들은 숲사이로 보이는 바다에 신명이 났다. 그들은 산꼭대에 올라가서 바다를 실컷 바라보았다. 바다는 사람이 높이 올라 갈수록 바다도 쑥쑥 올라가 하늘 속에 그 수평선을 올려 놓고 있었다.

"저기 봐래?" 라고 동쪽 소나무 사이의 육지 쪽을 인답이 가리켰다.

"저기가 너희들이 떠난 곳이 되겠구나."

"……."

두 아이는 신명난 얼굴이 당장 바뀌어졌다.

"여기서 우리는 즐거워하지만 저 육지는 지금 아무런 즐거움도 없다…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여기인들 어찌 즐거움 뿐이겠느냐… 여기가 있으므로 저기가 있음이라면 저기가 온통 고통의 나날인데 여기라고 그 고통과 등져 남남일 수 있겠느냐."

"……."

"나는 이것이 장차 우리가 할 공부에 나오는 과목이라 생각한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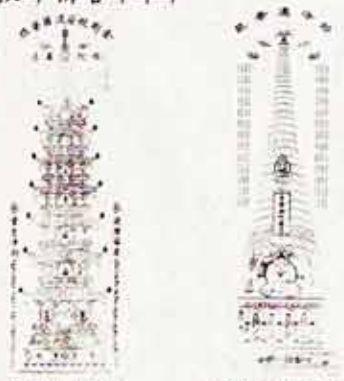
"……."

그림 · 조향숙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도생천화경 다보탑다라니〉

■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영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 62cm × (세로) 160cm

■ 부산 경상남북도
■상담문의 : 대한불교 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051) 864-3740
■ 기타 지역상담 문의및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회장 혜인)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9-1906, 아산(0342) 706-3060

⊙ 佛탑다라니의 신비로운 영험력!

1) 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지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2) 이 氣(기)는 신심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 지는 위신력을 발휘하여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한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갑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氣(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방출되면 약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3) 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갈등화복까지 판단할수 있으며, 조상님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 질것인지? ● 언제 이루어 질것인지?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하고자 하는일이 성사될것인지? ● 무슨일을 하면 될것인지 ? ●대학 입시에 합격할것인지? ●어느 대학에 들어갈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을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것인지 ? 등 여러한 일이든 신탑다라니 안에 적어놓고 氣(기) 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 질것은 氣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氣가 나오면 신중필구 (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한다는 점입니다. 氣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불탑다라니 氣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 지고 있는 일이 하다합니다.

4) 또한 무주공간에는 수 없이 많은 혼귀 魂(혼)들이 떠돌아 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은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관냉피창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불화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 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일이 저절로 풀려나갑니다.

5) 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스님들께 :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하심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심으로서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 불자님들께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 조성 경위와 사용방법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 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 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절염, 류마티스

CELL-GUARD(셀가드)

관절염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있다.

· 노령에 의한 관절염
· 신경정신 상태로 인한 관절염
· 체중이 무거워서 발생되는 관절염
·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관절염
· 퇴행성 골 관절염
· 류마티스성 관절염
· 통풍성 관절염

등에 대한 효능실험에서 멕시코 국립대학 임상연구결과 80명을 상대로 98% 이상의 완화(시카고 트리번지) 등에서 관절염, 관절통(통풍)등 기타 염증으로 인한 통증 및 부종과 유리기에 의한 신체조직의 파괴 및 관절염 노화 면역기능 악화에 탁월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수영양식품
국립보건원
자가기준 및 규격
제 893-606호

"미국수입완제품"

하루 빡 한번만 복용!!

2달분(정제형)₩270,000
은행카드 소지자 3~12개월 분할 혜택

사례문

김진길(56세) 세계참피온 류명우 스승

상기 본인은 셀가드가 관절염 · 류마티스 · 통풍에 좋다는 소식을 세계참피온 지도자 조희동(前 세계참피온 박종팔의 스승)씨 등 많은 권투인들로부터 전해 듣고 관절염과 통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좋은 약은 다 먹어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서 2달분을 구입하여 복용을 하기 시작하자 1달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꾸준히 복용하여 6개월이 지나자 완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완전히 나아져 저 처럼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이 제품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삼일양행

서울 : (代) 790-8200 (휴일도 근무함)
본사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08번지

지방에서 주문시 온라인 주문방법
예금주 : (주)한국복지공사
농 협 : 094-01-146584
우체국 : 010025-0126305-11
입금후 주소는 전화로 알려주세요(등기,소포우송)